돌 아닌 보석에 새긴 백제인의 부처님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백제인 돌을 다스리다' 5월 8일까지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3D프린팅 재현
백제 지역 돌산지 정보, 가공도구 등
건축 자재, 결구에 쓰인 장치돌 소개

돌을 보석처럼 다룬 백제인의 감성과
뛰어난 석조 테크 놀로지 조명 · 경험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보물) 3D프린팅 재현 (3D프린팅–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조영훈 교수팀)


부여 군수리 석조여래좌상(보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백제 시대의 석불과 석탑 등을 통해 백제인이 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윤형원)은 사비고고학연구회(회장 정훈진)와 함께 5월 8일까지 특별전 '백제인 돌을 다스리다'를 개최한다. 백제 브랜드를 활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백제인이 어떻게 돌을 다루었는지를 주제로 한 것으로, 석조 테크놀로지를 조명한다.

3개의 테마로 구성된 전시 중 3부 '백제인, 돌을 다스리다'에서는 돌로 만들어진 불상과 탑을 주제로 다룬다. 먼저 불상 코너에서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던 '부여 군수리 석조여래좌상(보물)'이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전시된다.

또한 하나의 큰 바위 4개 면에 불상을 새긴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보물)'이 전시되는데, 현재 예산군 화전리에 남아 있는 불상과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발굴하여 깨어진 상태로 보관 중이던 불두(佛頭) 편 등을 접합해 3D 스캔과 프린팅 작업으로 원형을 재현해 선보인다.

'부여 군수리 석조여래좌상'은 1936년 출토되었으며, 전체 높이 13.5m로 백제 불상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소발(素髮)의 머리에는 작고 팽이 같은 육계가 있으며, 초기 중국불상의 영향이 강하던 양식과는 다른 양식을 띠고 있다. 얼굴은 둥글고 복스러우며 만면에 미소가 넘친다. 두꺼운 옷에 싸여 몸의 형태는 드러나지 않고, 발의 표현도 없으며, 좁은 어깨, 양손이 배를 맞잡고 있는 모양 등은 그대로 이전의 방식이다. 어깨에 걸쳐 입은 납의는 매우 두꺼우며 앞가슴이 조금 터진 곳에 만(卍) 자를 새겼다. 계단식 옷주름을 그리며 내려오는 옷자락은 대좌를 덮어 상현좌를 만들고, 이 상현좌의 옷자락은 소박성과 탄력성을 지닌 사실감이 넘친다. 대좌는 옷자락에 거의 가려 있으나, 남아 있는 부분을 보면 그냥 사각형으로 깎아 만들었다.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에 있는 백제시대 불상이다. 1983년 발굴된 불상은 돌기둥 4개의 면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 백제시대의 유일한 사면불이다. 사면불은 일명 '사방불'이라고도 하는데,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사방 정토를 관장하는 신앙의 대상인 약사불, 아미타불, 석가불, 미륵불을 뜻한다.

남면에는 본존불로 생각되는 여래좌상이 있고, 나머지 면에는 여래입상이 새겨져 있다. 머리 부분은 서면과 북면만 많이 훼손된 상태이고 따로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손은 모두 없어졌다.

4구의 불상은 모두 양 어깨에 옷을 걸치고 있으며 가슴부분에 띠매듭이 보인다. 옷주름이 매우 깊고 가슴 아래에서 U자형으로 겹쳐있다. 광배는 원형으로, 불꽃무늬,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백제 특유의 양식이다.

탑을 주제로 한 공간에서는 국립부여박물관 야외 정원에서 전시하던 부여 구아리 출토 심초석을 선보이며, 심초석과 결합되는 석재 뚜껑을 비롯해 탑 조성에서 보이는 사리장엄구의 형태와 위치 변화를 다루었다. 특히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되는 기술발전 과정이 백제에서 시작되었음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백제의 탑 조영 테크놀로지가 신라와 일본은 물론 고려시대의 석탑 조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부 '백제인, 돌을 조각하다'에서는 백제지역의 풍부한 돌 산지 정보와 돌을 가공한 도구를 소개한다. 그리고 백제의 생활에서 사용한 다양한 돌 조각품을 다룬다. 여기에는 투박하지만 단순함이 특징인 절구를 비롯해 용기와 추 등 도량형으로 표현된 척도에 이르기까지 백제인의 손에서 탄생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보여준다.

2부 '백제인, 돌을 조립하다'에서는 마치 조립블록과 같이 돌에 난 홈과 턱으로 구성된 건축 자재를 비롯하여 돌과 돌을 결구(結構)하는 데 쓰인 장치돌을 소개한다. 그리고 세계유산인 부여 나성을 비롯한 백제의 주요 유적이 작은 돌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코너에서는 도수관(導水管, 물을 끌어오는 장치)을 비롯하여 부여 나성에서 출토된 명문(銘文) 성돌들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흔한 돌을 보석과 같이 다룬 백제인의 시각과 뛰어난 석조 테크놀로지를 경험할 수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전시실 해설서비스와 단체관람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의 주요 전시품에 대한 IoT 기술을 도입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블루투스를 활용한 비콘과 스마트 기기를 연동한 전시안내 서비스로 위치 기반의 전시품 자동안내 지도, 추천동선, 스탬프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041)833-8562.

'역병을 물리치는 동아시아 호랑이 판화'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1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임인년 호랑이해 설날을 앞두고 호랑이 관련 판화자료 전시가 열린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1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2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으로 한 · 중 수교 30주년 설맞이 특별전 '역병을 물리치는 동 아시아 호랑이 판화'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티베트, 베트남 등의 목판화로 제작된 호랑이 관련 판화와 판목, 호랑이 부적, 종이오리기로 만들어진 호랑이 전지, 호랑이 관련 우키요에와 호랑이 관련 전적 류 등 150여 점의 판화자료를 전시한다.

호랑이 판화는 집안의 대문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각종 재난과 역병, 나쁜 기운이나 귀신을 막아주는 수호신의 역할로 쓰여 왔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티베트, 베트남 등에서도 같은 용도의 호랑이 그림을 부적용 판화로 만들어 정초에 대문이나 집안에 붙이고,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자료 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자료는 한국에서 주로 사용한 삼재부 판화


김홍도 맹호도석판화(한국,근대).

와 금란장국부를 비롯하여, 중국 도교의 창시자인 장도릉이 호랑이를 타고 칼을 든 모습으로 모든 역병을 물리치는 부적인 장천사 진택(천사진택) 등이 있다. 천사진택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널리 쓰였다.

한 · 중 수교 30주년이 시작되는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장천사 진택 등 중국 호랑이 관련 자료가 40여 점이나 소개되고 있어, 한국과 중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호랑이를 통한 문화교류가 다양하게 있어왔다는 것을 전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교육 프로그램으로 호랑이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와 다양한 전통판화 교육도 마련된다. 박물관은 또 새해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호랑이 판화 인출체험도 무료로 진행한다. 박재완 기자



해금연주가 성의신 음반 발매
333장 한정판 LP '해금소리'
'아지랑이' 등 엄선 10곡 수록

불교음악과 수행력을 바탕으로 해금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성의신이 1월 21일 해금연주 LP '해금소리'를 발매한다.

이반 음반은 성의신〈사진〉이 KBS국악관현악단 36년 활동을 회향하는 음반으로, 40여 년간 해금연주자로 활동한 성의신이 엄선한 연주곡 10곡을 담았다. 지난 2021년 초 정년퇴임한 성의신은 36년간의 관현악단 생활을 마감한 자신과 그간 자신의 음악을 응원해준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특별히 333장 한정판으로 발매한다. 당초 계획했던 300장에 '33관음', '33천'의 의미가 더해졌다. 음반발매에 앞서 1월 20일까지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음반의 SIDE A에 실린 5곡 중 '아지랑이', '구름에 걸린 달', '겨울아침', '어느 봄날의 꿈', 4곡은 국악 음반으로는 드물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며 불교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성의신을 세상에 알렸던 1집 앨범 'Moon in the Cloud'의 수록곡이다.

SIDE B에는 불교음악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온 성의신이 가장 아끼고, 본인의 음악적방향성을 '불교음악'으로 굳힌 4집 앨범 '미래회상'에 담겼던 '세령산', '타령', '해금상령산풀이'를 비롯한 5곡이 수록됐다. 이 가운데 '세령산'의 연주는 양금, 소금, 시타르와 함께 연주했고, '타령'에서는 피아노, 첼로, 퍼커션과 협연해 국악과 불교음악의 폭을 넓혔으며, 특히 '해금상령산풀이'는 해금연주자로서는 처음으로 성의신이 구성하여 발표한 곡이다. 박재완 기자

불곡산 대광사 2022년 신입생 모집

명상 상담 대학

▣ 접수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2월 13일(일) 까지

▣ 강의내용 :

과 목	강의내용
불 교	불교개론, 사념처관법, 대승반양사상, 유식과명상, 천태소지관
명 상	위빠 사나(알아차림, 자기집중, 호흡) → 이론, 실기 병행 및 무념 치유(특강)
상 담	상담 심리학, 성격 심리학, 가족 행복상담, 대상별 상담 이론 및 실체

▣ 강의시간 : 기본과정 [야간] 매주(화) 19:00 ~ 22:00
심화과정 [야간] 매주(수) 19:00 ~ 22:00
전문과정 [야간] 매주(목) 19:00 ~ 22:00

▣ 수 료 후 특 전 : 명상 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특 강 : 매주(화) 테라피요가 명상

▣ 대 상 자 : 명상을 원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능

▣ 접수방법 : 대광사 종무소 방문 또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인터넷 입학 신청

▣ 문의전화 : 031)715–3000

▣ 수 강 료 : 한 학기당 170,000 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031–715–3000 / 3404